

# 부로일러종계의 변천과 개량사



전북 이리시의 부로일러 양계가인 박돈식씨가 부로일러에 대하여 육고를 보내왔다.

본지 독자의 투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1. 부로일러용 종계의 변천

1940년대[제 2 차세계대전전(前)]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망라하여 식육용(食肉用)으로 쓰였던 닭은, 즉 육용계로 이용했던 식육계는 그 체중이 백색 레그혼(White Leghorn)과 같은 난용종에 비해서 보다 무겁고 대체구로 비육성장이 되는 닭들을 이용했었으며, 그 계종들을 열거해 보면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서섹스(Sussex), 와이언 도트(Wyandotte), 푸리머스 록(Plymouth Rock) 등의 겸용종이 있었고, 코친(Cochin), 부라마(Brahmas), 오핑톤(Orpington), 랑산 등의 육용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졌었다.

이와같이 중량종(Heavy Breed)들은 발육성장으로 볼 때 대개는 늦되는 경향의 닭들인데 비해 이들이 완전 성숙했을 때의 생체중은 암탉이 3.5kg, 수탉이 4kg 선을 상회하는 중량급으로서 이밖에도 이들은 육질과 맛이 매우 좋았으므로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주로 고급요리의 재료로 널리 애용되었다고 한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도 식육계의 일종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던 닭품종이 있었다면 이 닭은 사모종(투계의 일종)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의 일대잡종도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들도 역시 발육도로부터 만숙종(晩熟種)이기는 하나 고기의 품질과 맛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하였다. 그리고 더욱 희귀하였으므로 가격도 매우 높았었다.

따라서 미국 등의 각국에서 사용해 왔던 제 2 차세계대전전의 식육계로는 역시 양적인 것보다는 다소 품질과 맛에 관심이 더 많았고 개량면에서도 이점에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선진국의 일부에서는 이 무렵에도 2~3개월령의 어린 닭들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영계용의 육계를 생산했던 것이지만, 대부분 중량종의 수탉(영계 이용)이 아니면 성계에 도달한 암탉을 식육계로 이용했던 관계로 겸용종이나 육용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체구작출(大體軀作出)의 방법으로 개량되어 갔고 이때가 중량급 생산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육용종계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면서 알아두어야 될 일은 중량종의 생산이 꼭 산육(産肉)

만을 목적으로 개량, 생산되었던 것만은 아니고 암탉은 어디까지나 산란역활을 끝낸 후라야(폐계처분이 된 후라야) 비로소 식육용으로 이용했고, 수탉은 암병아리(차후 산란용계) 생산확보의 부산물로서 한동안 사육 후 식육계로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큰 체구의 종계를 작출(作出)할 목적으로 개량한 바 있는 부라마종이나 코친등의 육용종은 비교적 높은 산란성을 가지고 있는 와이안도트, 로드 아일랜드 푸리머스 록 등의 겸용종들에 의해 다소 퇴조의 기미를 보였고 다시 이 겸용종들도 시대적 변화와 조류에 따라 차츰 경량화 및 다산화의 계종(鷄種)으로 변화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 자동감별기술의 발달과 이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겸용종도 한발 후퇴하는 단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자연 난용종의 성체가 두드러졌던 사실이 되겠고 극단적이나마 위의 설명은 이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어쨌든 그 당시의 계육생산방식은 중량종을 완숙단계(完熟段階)로 사육한다면가 또는 비슷한 기간으로 육성해서 식용으로 이용했던 산육방식 이외에는 소나 돼지 등을 길러서 고기를 얻는 방법과 별 차이없는 방법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세계제 2차대전을 거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식육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는데 이의 해결책으로 계육생산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육용종계도 전쟁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개량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무렵 서구제국(西歐諸國)의 축산업계에서도 역시 세계제 2차대전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유럽등지에 진출시켜야 되는 수많은 군대를 위해서 다량의 식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심각한 식육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미국의 양축업자들은 대량의 식육을 단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는데 즉 닭을 이용하여 단시일내에 다량의 계육을 생산하는 방법이였다.

그러나 단시일에 막대한 양을 요구하는 때이였으므로 전쟁전의 계육생산방식과 같이 발육이 늦고 성계로 키운 뒤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보다 빨

리, 보다 산육성(産肉性=비육성)이 높은 닭품종의 출현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에 적합한 닭품종으로서는 대군사육(大群飼育=大量生産)에도 지장없이 견딜 수 있는 완전하고 강한 체질을 보유한 종계라야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요망에 대응해서 작출되었던 맨처음의 종계가 뉴 햄프셔 종이었다. 이 닭은 우리나라에도 8.15 해방과 더불어 미군과 함께 들어왔고 그 당시 우리 양계인들은 그 빠른 성장도와 강건성에 다같이 경탄하여 마치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오늘날 대규모의 부로일러 산업을 개발, 발전시킨 국가는 미국이지만 실질적인 공로자는 뉴·햄프셔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7~8주령의 어린닭을 식용으로 쓰는 새로운 계육생산(鷄肉生産)의 방식은 구미제국의 전쟁중에 식육부족 대책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방식은 중전 후에 잠정화(暫定化)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오히려 전후의 미국은 부로일러 산업이 한층더 발전되었고 서부유럽은 물론 동남아, 일본, 한국에도 현재와 같은 부로일러 산업을 일으키게 되었다. 불과 2개월령의 어린 닭이 무려 1.5kg 선의 생체중을 가지는 고성능화된 육계도 등장하고 보니 성계비육방식인 재래의 육계종계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육계가 대량생산이 되고 보니 산란용 병아리 중 숫병아리의 사육도 빛을 잃게 되었다.

육계로서의 위에 열거한 비합리적인 조건들을 개선하여, 부로일러 전용종계의 개량 사업에 착안하여 그 어느나라보다 신속하게 완성시켜 성과를 거둔 공로자도 역시 미국이었다.

## 2. 부로일러용 종계의 개량(미국)

미국에서 부로일러 전용종계를 개량해 나가는 데에 특이했던 사실의 하나는 이들의 육종사업(종계의 개량 작출)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육종업가나 일반종계회사에 의하여, 더우기 완전 자유경쟁하에서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이나 이의 연구기관에서는 이 종계 개량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고 동시에 전자(前者)의 행위나 노력에 대해서

도 하등의 간섭 또는 제약이 없었다는 점인데, 다시 말하면 부로일러 전용종계의 개량에 있어 그 나라의 “가금표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이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작출한 부로일러 전용종계는 자기 몇 종류씩의 다른 품종으로 하여금 합성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금표준”과는 전혀 합당되지 않는 새로운 품질의 종계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코니쉬(Cornish)라는 닭을 보면 영국에서 투계감상용(鬪鷄鑑賞用)으로 개량되어 있는 이 품종이 미국에 도입되어서는 다른 계종과 합성시켜 개량해 본 결과 그로써 얻어진 미국의 코니쉬는 소위 “가금표준”에 기록된 “원형”과는 차이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무엇인가 변형의 격차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코니쉬만 하더라도 그 개량에 대해 관계기관이나 당국에서 “가금표준”에 따를 것을 고집했다면 현재의 미국의 개량 코니쉬는 아직도 작출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래서 종계의 개량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해마다 진보가 있었으니 이와같이 꾸준한 변전(變轉)과 발전에 대해 종계의 표준을 부설(付設)한다는 것은 일대 무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털색이나 벃모양과 형태등보다는 다만 산육능력과 비육성 위주의 품종만 작출된다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부심(腐心)한 육계육종가들이 “능력품종”만의 작출에 주장이 철저했던 터에 당국에서도 제재(制裁)가 없는 상호협조의 방법을 유지해 나갔다는 점은 그들의 현명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부로일러 종계개량사업의 장려와 촉진에 대해 가장 큰 공적을 세운 것은 에이 앤드 피[Atlantic and Pacific Tea Company: 미국 유수(有數)의 식품 회사]사가 1946년 부터 195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주재(主宰)한 전미국산육능력검정회(全美國產肉能力檢定會)라 할 수 있다. 이 검정회에서는 “내일의 닭콘테스트”(Chicken of Tomorrow)라는 표제아래 전국의 종계가들로부터 출품을 받아 산육능력을 검정하고 상위(上位) 입상자들에게는 많은 상금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종계가들의 목표는 상금의 획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권위있는 검정회에서 상위권(圈)으로 입상이 되므로서 그 명성을 전국에 선전하는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이 검정회는 순수한 개인업체의 주최이기도 하지만 권위가 있었다. 1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로일러 전용종계의 개량촉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자, 개인회사로서의 부담 문제가 있고 해서 1956년에는 검정회가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는 부로일러의 생산이 많은 주의 주립양계시험장에서 공식적인 산육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긴 세월을 두고 연구 노력했던 미국의 부로일러 종계의 변천은 이와같은 미국 육종학자들의 활약으로 오늘날의 각양각색의 좋은 신종(新種)들을 출현시켰고 따라서 우수한 신종이 나타날 때마다 부로일러의 경제적인 형질(形質)도 급속도로 개량이 되어갔던 것이다. 새로운 우량종이 개발, 등단(登壇)되면 어제의 품종은 하염없이 빛을 잃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 등 종계의 영고성쇠(榮枯盛衰)가 치열한 가운데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남긴 것이다.

### 1) 바드 크로스(Barred Cross)

1930년경 미국에서 부로일러의 육성계로서 사용되었던 닭이 이 가로무늬(橫斑) 프리마스 록이었고 이 순종은 발육이 좀 늦으며 그 밖에도 활력성이 약해서 대군육성(大群育成)의 목적으로는 별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횡반 프리마스 록 송에 로드·아일랜드 우의 10대 잡종을 작출한 결과 이 1대 잡종은 잡종강세(強勢)에 따라 전자보다는 발육이 좋았고, 체질도 강건한 부로일러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그 당시 한때는 전미국 부로일러의 거의 과반수량을 확보한 형편이었으나 얼마후 신품종인 뉴 햄프셔의 출현으로 낙후의 존재가 되었다.

### 2) 뉴 햄프셔(New Hampshire)

담갈색(淡褐色)인 신품종 뉴 햄프셔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하나 로드 아일랜드종을 모체로 해서 작출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신품종의 작출에 성공한 사람은 뉴 햄

□부로일러 종계의 개량□ .....

프셔주의 저명한 종계가인 엔드류·크리스티씨 이고 이 품종을 개발한 공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은 미국의 양계사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크리스티씨가 1940년까지 구축하여 놓은 뉴 햄프셔종의 토대를 가지고서 그로부터 1956년까지 무려 16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부로일러 전용계로 개량 보급시켜 뉴 햄프셔종의 황금시대를 이룬 사람은 같은 뉴 햄프셔주의 종계가인 니코르스씨와 그의 후계자인 클멘씨였다.

그 당시 니코르스종계회사의 육용 뉴 햄프셔종은 전미국 부로일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부로일러 산업의 발전의 기틀은 실로 이 육용 뉴 햄프셔종의 출현과 보급으로 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뉴 햄프셔종은 활력이 왕성하고 우생순조(羽生順調) 발육신속으로서 순중 그대로 부로일러 생산용으로 사용했으며 전술한 바드 크로스를 압도(壓倒)하는 고성능 육계였으나 이 뉴 햄프셔 우에 다음에서 기술할 갈색 코니쉬 송를 교배한 교잡종은 더욱 신속한 발육과 경이적인 비육성(肥育性)을 자랑하는 능력계로 등장하였다.

### 3) 갈색 코니쉬(Red Cornish)

갈색 코니쉬의 육계로서의 풍부한 체형(體型 = 特히 胸肉의 充實)이 마음에 들어 이 종계의 개량에 착수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벤트레스(Ventress)씨이다.

벤트레스가 작출한 갈색 코니쉬에 니코르스의 뉴 햄프셔와의 교잡종이 1948년 “내일의 닭”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이래 1956년까지 8년간 미국 부로일러의 거의 전량(全量)을 차지하게 되었고 니코르스씨의 뉴 햄프셔종은 이 이후에는 갈색 코니쉬 송 × 뉴 햄프셔 우교잡종의 모계 역할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순수한 뉴 햄프셔종으로서 부로일러 생산용계로서는 거의 이용도가 희박해졌다.

### 4) 백색 록(White Rock)

백색 록종도 1940년 후반부터 부로일러용으로 서 유망품종으로 등장하여 일부에서 다소 이용

되기에 이르렀는데 1950년대의 후반에 들어가 백우색계(白羽色鷄)의 유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래의 뉴 햄프셔의 후계자로 대두되어서 갑작스런 인기상승과 보급이 시작되었다.

백색 프리마스 록은 갈색 뉴 햄프셔에 비해서 능력적으로 우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백색우모의 유용성과 인기로서, 즉 도체가 깨끗하며 탈모에 손이 덜 간다는 등의 가공상의 유리성으로 그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갈색계는 아무래도 점정털, 붓털(붓같이 생긴 未發育羽) 등이 도체의 표피면에 남아 보기에 지저분할 뿐더러 이것의 제거에는 잔손질의 수고와 시간적인 낭비가 있는 반면에 백색계는 이런 결점이 없으므로 계속상임으로부터 호감을 받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5) 백색 코니쉬(White Cornish)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로일러 취급업자들로부터 백색우모계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고보니 종계도 역시 백색화 되어야 했다. 백색 록은 열성백색종이기 때문에 갈색 코니쉬 송을 교잡시키더라도 백색 교잡종이 나오지 않으므로, 백색 록 우에 대한 교배상대는 우성백색종이라야 한다.

1958년 이후 갈색 코니쉬는 기술진에 의해 우성백색화(優性白色化)가 되었고 이 우성백색 코니쉬에 열성백색종의 백색 록을 교배시킨 교잡종은 1960년대 이후 드디어 전미국 부로일러의 90% 이상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이상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부로일러 생산에서 활약한 주동계종(主動鷄種) 몇가지를 예거해 보았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품종이 있고 또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기술한 미국의 부로일러용 종계의 번천과정에 대해서 특기할 것은 미국에서는 부로일러 산업의 초기부터 백색 레그혼 계통의 용계(雄鷄) 등은 전연 사용된 일이 없었다는 점이고 백색부로일러용 종계의 작출 성공 이후로는 자용을 다함께 부로일러 육성용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이다.

□□

..... □부로일러 종계의 번천□